



“동학 농민군 발자취 따라 평화·상생·소통의 시대로” 고창 무장기포기념제 · 무장음성축제 성료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음성축제’가 4월 25일 개최됐다.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음성 일원에서 열린 행사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무장음성축제위원회 공동주최로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정사, 포고문 낭독, 헌화·봉양에 이어 무장기포지에서 무장음성까지 약 8.3km에 걸친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선운사 미륵보살 비기탈취 및 무장음성 무혈입성을 재연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행사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등·자주의 가치를 내걸고 목숨을 던져 피와 함성으로 걸어갔던 동학농민군들의 발자취를 따라 농민군들의 염원과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제9회 녹두대상’ 수상자인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신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해 연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풍천(風川)’ 어원고증 고유지명화 추진한다 지역 브랜드화 노력



고창군이 선운전 일대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풍천(風川)’이란 지명의 역사적 유래와 어원을 고증하고 이를 고유지명화하여 지역 브랜드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은 4월 21일 ‘풍천의 고유지명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고창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연구회 이병렬 이학박사가 ‘풍천’의 유래와 지역적 의미,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풍천’이라는 지명이 오래전부터 고창의 선운산 도솔암 계곡에서 시작해 선운사 앞을 지나 주진천과 합류하는 선운천 수계를 명명하는 고유지명이었다고 주장했다.

‘풍천’은 오랜 기간 고창의 선운천 수계를 지칭하는 말로 불려왔지만 고창의 고유 지명이 아닌 일부에서 ‘강의 하구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일반명사화 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군이 고창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의 가치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대대적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키운다

고창군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가상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대응하는 현장 훈련으로 진행됐다.

5월 16일에는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해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및 주민 자율 대피훈련(20개소)’과 ‘차량 통제 훈련’,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을 실시했으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아울러 5월 18일에는 유관기관과 군민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하·해리·심원면과 청소년수련관에서 ‘2016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탄력’ 지속가능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5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인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

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관리센터가 건립되면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더욱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곡 탐사터 습지 에코촌 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간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

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뤘다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원 두어마을, 6차산업 이끈다 체험 · 관광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어촌 기대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 수산물과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가공·유통·관광·서비스업과 접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안에서도 핵심지역인 고창갯벌이 있고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주식 김, 갯벌전업, 가무락, 뽕장어, 복분자, 오디 등 천자연적 산물이 풍부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두어마을은 앞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갯벌체험장 운영과 지역 특산물 로컬푸드 및 식당, 다양한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엠키스 가공공장, 마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희망 100년을 위한 새로운 변화.
기쁜 좋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고창군에서는
재외군민 여러분께 따뜻한 고창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매월 “고창군정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및 주소변경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로 전화주세요.**

063-560-2327

바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도리
귀정가세**

5.21~9.24 매주 토요일 19:30
휴가철 맞이 금요 공연 (7월 15, 22, 29일 / 8월 5, 12, 19일)

고창읍성 내아 우천시 동리국악당

주최 **전라북도 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고창군** 후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협찬 **진농식품** **배상면주가** **고창LB** **국순당고창명주**

더욱 깊은 울림으로
고창읍성 내아의
달빛아래 펼쳐집니다.

2016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문의 063-562-2044

고창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는 2016. 5. 17(화)부터 5. 31(화)까지 1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우수 지질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고창군 행정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이며 깊이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했다.” 말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군민들의 믿음에 적극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경진 의원은 원전시설과는 폐려야 뻔수 없는 고창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첫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을 요구하고, 둘째 고창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유치를 제안하였다.

김영호 의원은 고창 쌀 소비 촉진을 통한 고창군 농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첫째 고창 쌀의 홍보 강화, 둘째 명품 쌀 육성을 통한 쌀 품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 셋째 고창 쌀의 적극적인 대량 소비처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박래환 의원은 고창읍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보전과 주변 경관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모양성 복원사업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하고, 고창읍성 주변 생태환경 관광인프라 조성하고 교통인프라가 연계 조성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14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참가

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는 지난 4월 28일 무주군에서 열린 제14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상호 의장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박래환 의원은 전북시군의회회장단협의회로부터 ‘전북의정봉사상’을 수상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을 다지기 위한 경기로 족구, 농구공 넣기, 고리걸기 등 화합과 소통을 가지는 자리도 마련되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의장은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시·군의회 상호간 화합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발전의 도약과 공동협력의 계기 마련의 장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4,393억원보다 348억원이 증가한 4,7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574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생활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용어 해설

▶ 제 의 ◀

의장(위원장)은 간단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장(위원장)이 안건을 내는 것을 “제의”라고 한다.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것은 발의위원과 찬성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 산회 등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한 안건은 사회자인 의장(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다.

▶ 표결정정의 금지원칙 ▶

의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안건을 본회의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결정정의 금지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가 결 ▶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가결이 된다. 즉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의결)한다.

▶ 청 원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든가, 또는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 소속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청원이 지방의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의결)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통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의회가 직접 처리한다. “청원”과 “진정서”의 차이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소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고창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고창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방문 대상은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비교적 비중있는 정책사업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추진된 정비사업(고창의 강),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과 같은 재난대책 사업들도 주요 대상이다. 이밖에 우리 지역의 최대 현

안인 황토배기유통센터 등도 돌아보았다.

군의원들은 주요사업장 현장들을 돌아보면 서 사업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진과 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굴형 명상센터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군민들이 힐링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하였으므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생활형 야구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신축중인 야구경기장에는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현장에서는 행정과 병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분만 산부인과 시설 뿐만 아니라 산모의 편의를 위하여 산후조리시설 건립 유치를 주문하였다. 또한 현재 건축중인 분만 지원센터의 건설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이상호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배분·집행하고 있는지와 예산의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

-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 일자리 상담 :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560-2366)

연번	일제명	인원	요청사항	공무포진	현장일	공무지
1	서울시니어스엘리트스고창	2명	하루스키퍼8각심관리원	급여:180만원이상 주5일근무/탄력적휴무제 근무:수목요일/당일시간근무	재용시	고창읍
2	서울시니어스엘리트스고창	1명	사회복지사(분양담당)	급여:최저내규에 의함 주5일근무/탄력적휴무제 월~금 09:00~18:00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재용시	고창읍
3	석정 웰파크병원	1명	병동도우미	월 130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정액에 따라 급여지급	재용시	고창읍
4	석정 웰파크병원	1명	간호조무사(병동)	주6일근무 월~금 08:30~17:00 토 08:30~12:00	재용시	고창읍
5	세무회계원	1명	회계사무원	월 127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재용시	고창읍
6	태후식품영농조합	2명	택배포장 및 제조보조원	월 15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재용시	고창읍
7	알파폴리텍	0명	플라스틱제조 생산직	주5일근무/주이2교대가능 08:00~20:00/20:00~08:00	재용시	고수면
8	연경전자(주)	1명	물류배송원	월 2,100만원 이상 주5일근무/08:30~17:30 (연식근무2시간 가능자)	재용시	고수면
9	㈜이인자루드	0명	냉동식품 생산직	월 130만원/월 150만원 주6일근무/토요일주휴무 월~토 08:30~18:00 (남자-08:00부터 근무시작)	재용시	부안면
10	㈜이인자루드	1명	주방조리원	주5일근무/10:00~16:00	재용시	부안면
11	(유)대진레미콘	1명	레미콘배차 사무원	월 150만원 주5일근무/08:00~17:00	재용시	신림면
12	서울푸드	1명	그늘집종사원	탄력적휴무제/07:00~18:00 (6회휴무)	재용시	아산면
13	서울푸드	3명	주방조리사 및 출세빙	급여:최저내규에 의함 조출(05:30~15:00) 후출(07:00~17:00) (탄력적휴무제)	재용시	아산면
14	(주)도덕	3명	반도체 부품생산직	연 2,700만원(공적자 지원가능) 주5일근무/08:30~18:00 (연식근무2시간 가능자)	재용시	흥덕면
15	에스엔머티리얼즈	2명	신재생에너지 생산직	월 170만원 주6일근무/08:00~20:00	재용시	흥덕면

매월 4일은 안전점점의 날 농업기계안전이용 지침

- 01 기본에 충실하자**
 - 농기계보관장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02 방심은 사고를 부른다**
 - 논·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 운전석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자!
- 03 안전점점은 필수!!**
 -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 농작업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자!
- 04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자!**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 05 사고원인 제거는 철저하게!!**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농기계 작동시에는 화상에 주의하자!

국가행정기관별로 사용해오던 상징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하나가 됩니다



대한민국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매입한 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매입대상

-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농업용 시설(부지지목은 논, 밭, 과수원): 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 농업용 시설: 임대기간(7년) 만료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

농지 등 임대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 등을 임차하여 영농을 해야 함
- 연간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자에게 임대기간 중 환매권 부여

환매가격

- 농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이나, '농지 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소요일수)' 중 낮은 가격
- 농업용 시설: 당초 매입금액 (단, 임대기간 연장시에는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 신청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연중 수시)
- ◆ 신청 및 문의장소: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
- 농지은행부 (560-1509, 1510, 1555)

“치즈·빵 만들고 텃밭 가꾸며 푸르른 대지와 하나됐어요” 도농상생 프로젝트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개장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에 위치한 ‘상하 농어촌 테마공원’에는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다. 아이들은 체험교실에서 치즈와 빵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함께 온 학부모와 어른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한다.

‘상하 농어촌 테마공원’은 농업·축산식품부와 고창군, 매일유업이 한국형 6차 산업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아 지난 2008년부터 민관합동으로 기획·추진해 4월 22일 정식 개장했다.

상하농원은 ‘짓다-놀다-먹

다’를 컨셉으로 햄·과일·빵·발효 공방을 운영해 고창 지역의 우수한 로컬 푸드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면서 직접 식재료를 키우는 텃밭정원과 4가지 맞춤형 체험교실(소시지·아이스크림·밀크빵·치즈)을 통해서도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하키친과 농원식당, 카페텔라도 등 테마공원의 장점을 잘 살린 레스토랑에서는 ‘고창 청보리 아이스크림’ 등 고창의 농산물과 특산품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동물 농장, 유기농 목장에서는 동물과 자연, 사람이 함께 교감하고 자연 그대로의 순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자연의 선순환 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어 벌써부터 호응이 뜨겁다.

‘상하 농어촌 테마공원’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 국내 관광서비스 산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랑스런 고창인과 함께하는 군민화합교례회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희망고창’



자랑스런 고창인과 함께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군민이 행복한 희망 고창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지는 ‘군민화합교례회’가 4월 27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고창군에향운동본부 주최한 이번 교례회는 고창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병원(서울 은평을), 백재현(경기 광명갑),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당선인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서울대

입학생과 중·고·대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고창군수, 군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고창경찰서장, 고창교육장, 대한노인회장, 재경군민회장, 재전향우회장,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고창군에향운동본부 조병재 본부장은 “화합과 협력으로 6만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매진하자”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군민화합교례회가 군민의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고 고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고창인의 저력과 열정으로 ‘한국인의 본향, 고창!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군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자! 세계로, 오라! 고창으로 재경고창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고창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16회 재경고창인 한마음 큰잔치’가 5월 1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가자! 세계로, 오라! 고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재경고창청년회(회장 김용현)가 주최·주관하고 재경고창군민회(회장 임정호)가 후원했으며, 향우회원

조를 다짐했다.

김용현 재경고창청년회장은 “늘 고창군과 군민들이 재외군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 고향을 자주 찾고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및 가족, 고창군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회식 후 여자승부차기, 족구, 줄다리기, 여자씨름, 축구 등 체육경기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동문 간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체육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창군 14개 읍·면 주민들과 공무원도 함께 참석해, 고향소식을 전하고 재경고창인들과 우의를 나누며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

온누리 평온과 자비를! 선운사 봉축 법요식 성대하게 열려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에서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풍요로운 세상, 자비로운 마음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을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거행했다.

봉축 법요식은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관불 및 헌화,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경주 주지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다”라며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길 염원하면서 복된 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천년고찰 선운사가 불교진흥의 중심부에 우뚝 서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모두의 마음에 자비로움이 가득한 풍요롭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화합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즐거운 시간

고창군이 직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적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열었다.

5월 13일 군립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고창군수, 군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36개 부서 공무원과 행정동우회, 고창군주재기자 등 1천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모양성, 방장산, 동백꽃, 선운산 등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했다.

배구, 터치볼,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과 지내발 릴레이, 판 뒤집기, 럭비공 물기 등 오락경기를 통해 협동심을 발휘하며 친목을 다졌다.

고창군수는 대회사에서 “한마음 단합대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열기와 힘을 모아 군민봉사와 명품고창건설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2부 행사는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 주관으로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화합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고창군, 꼭지 짧은 수박 유통 교육 짧은 꼭지 수박 맛·신선도 좋아요!

전국 최대의 수박 주산지인 고창군이 꼭지 짧은 수박 유통에 적극 나섰다.

5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박 재배농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꼭지 짧은 수박 유통교육’이 진행됐다.

‘꼭지 짧은 수박’은 종전 T-자형 꼭지에서 1-자형 꼭지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도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진 수박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부터 유통시장에서 꼭지 짧은 수박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T-자형 수박꼭지는 이를 제거해도 품질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그동안



안 신선도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여겨 왔으며 수박재배 농가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

이날 교육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박혜민 사무관은 “수박 꼭지가 수박의 당도와 신선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T-자형으로 맞춰 꼭지를 자르는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으므로 노동력과 관리비가 절감돼 연간 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 왔어요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 의료봉사단이 고창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를 펼쳤다.

의료봉사활동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고창군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와 통증의학과와 전문의의료가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기초검사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주민 130여 명에 맞춤형 의료진료와 처방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무료진료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생활용품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농어촌지역 출신의 직원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의료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진행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의료혜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산림조합, 원목 효도의자 기증 따뜻한 나눔 어르신 편안한 쉼 곳 제공

고창군산림조합이 5월 18일 벌목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나무를 활용해 제작한 원목 효도의자 50개를 고창군에 기증했다.

고창군은 기증 받은 원목의자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안길이나 쉼터, 버스 간

이 정류장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고창군산림조합장은 “지난해에도 고수면 연동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의자를 기증했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올해 효도의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발체목을 더욱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분자 아락’ 몽드셀렉션 금상 수상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에서 맛과 품질 인정

배상면주가 고창LB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주류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자사제품 ‘복분자 아락’이 금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술을 만드는 회사임을 입증 받았다고 전했다.

‘복분자 아락’은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만을 발효하여 강렬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증류주이다. ‘복분자 아락’은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알린 바 있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주류 품평회로 영국의 IWSC(International Wine

Spirit Competition),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WSC(San Francisco World Spirit Competition)와 함께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다.

매년 80개국 이상 3천개가 넘는 주류제품들이 경쟁을 펼치며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고창출신의 판소리 이론가 동리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버라이어티 감성농악이 올해도 우리 곁에 찾아왔다. '도리화 귀경가세(연출 남기성)'는 지난 해 전라북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고창 대표작으로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5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질 '도리화 귀경가세'를 위해 제작진과 출연진은 불철주야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공연을 주관하고 이번 공연에서 제작총괄을 맡은 고창농악보존회의 이영훈 회장을 만나 '도리화 귀경가세'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을 올리게 됐다. 소감은?

A. 지난해에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다시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지난해 공연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최고의 공연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지난해 공연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A. 가장 큰 변화는 공연 무대가 고창읍성 옆 도예체험장에서 고창읍성 내아로 바뀐 것이다. 티켓 판매나 체험과 이벤트가 있는 토요일화날이더는 접근성이 좋은 고창읍성 밖에서 이뤄진다. 전문예인들의 참여와 아이들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토요일화날이더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강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도 함께한다.

Q. 무대를 고창읍성 안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A. 도예체험장이 좋았지만 역사성과 전통성,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고창읍성 내부 한옥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공연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지난해 공연에 대한 호평과 기대에 힘입어 고창읍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달빛 아래 아름다운 한옥 '내아'를 배경으로 공연을 펼치게 되어 작품의 완성도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

Q. 내용적인 부분에선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A. 출연진인 A팀과 B팀 더블 캐스팅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공연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예술인의 고용창출 효과 등 공연의 질을 강화했다. A팀, B팀간 판곡 구성에 차이가 있어 캐스팅에 따라 공연을 보는 재미와 매력이 다르다. 관객 입장에서 같은 공연을 두 번 봐도 질리지 않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먹·놀·자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되나?

A.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공연 티켓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제휴업체의 할인쿠폰을 책으로 엮은 쿠폰북을 드린다. 고창의 대표 맛집과 숙박업체만 엄선했기 때문에 고창군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휴업체 14개소는 공연 티켓 현장 구매도 가능하여 관객들이 손쉽게 티켓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먹·놀·자(먹고,놀고,자고) 프로젝트'는 고창도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프로젝트다.

Q. 티켓은 일반티켓과 플러스티켓을 따로 판매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A. 일반티켓(1만원)은 공연 관람과 먹·놀·자·제휴 쿠폰북을 드리는 구성이고, 플러스티켓(1만5천원)은 일반티켓의 혜택에 고창읍성 산책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 새참까지 제공하도록 구성됐다.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참여로 고창 문화관광자원에 담긴 자연과 사람, 역사, 작품의 주요 배경 및 인물에 대한 해설이 담긴 산책 프로그램과 공연을 연계하여 혜택은 2~3배가 많다. 플러스티켓은 공연 전일까지 인터넷 구매와 공연 당일 현장구매만 가능하다. 플러스티켓의 경우 매회 공연 시 20명으로 제한을 두니 서둘러 예약하시는 게 좋다.



Q. 새롭게 투입되는 배우진과 제작진은?

A. 배우팀 중 다복 역에 구혜민 씨와 신재효 김선미·전새론(장구), 김한설(북), 여현수(징), 조민경(소고), 고안나(새남·나발) 씨가 새롭게 합류했다. 지난해에 이어 반주팀은 고창의 전통문화를 잇는 국악예술단 '고창'이 맡는다.

Q. 공연 관련 포인트는?

A. 작품의 장르는 '버라이어티 감성농악'이다. 농악을 중심으로 소리, 극, 춤, 민형극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 전통예술'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15명의 전통 연희자의 특별출연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한 금희복춤 배관호 선생, 설장구 신민중 선생, 한량무 강동욱 선생 등 전통연희 명인들도 고창을 찾을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고창군민께 한마디 한다면?

A. '한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 '도리화 귀경가세'도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커 나간다고 생각한다. 고창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이야기 소재와 고창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하여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소상공인들과 상생 협업을 내실을 더해 지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 나아가 고창군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창 낙우회, 사랑의 우유 전달 저소득 아동 100명에 1년간 훈훈한 나눔 실천



앞으로 1년 동안 우유를 지원키로 했다.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창군 낙우회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1900여만원 상당의 멸균 우유를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 낙우회 김투호 회장은 "지역 낙농업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나눔 활동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낙우회가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훈훈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고창군 낙우회 김투호 회장은 5월 9일 고창군청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해 '사랑나눔 우유 전달식'을 갖고

은은한 묵향의 정취를 느끼다 제13회 한국 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전시회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제13회 한국 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5월 19일까지 '제13회 한국 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입상작과 초대작가의 작품 등 총 240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동백서화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고창군, 고창군의회가 후원한 '제13회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전시회는 국내 서화인들이 참여해 군민들에게 은은한 묵향의 정취를

전했다.

한재영 동백서화회장은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국단위의 공모대전 개최를 통해 서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리국악당 테마공연』 조통달과 제자가 함께하는 시절인연



공연내용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조통달
사물놀이와 비보이가 함께하는 비나리	유태평양 외 4명
국악요가 사랑가	이제학, 기태희
가야금병창	문명자 외 4명
입제창 수궁가	조통달 외 4명
교방궁거리, 진도북춤	전통예악원 누리춤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유태평양 외 4명
아정산조	조통달
민요 신 뱃노래	조통달 외 9명
부채춤	전통예악원 누리춤
토막창극 흥보가 중 화초장	조통달 외 9명
진도아리랑	출연자 전원

- 일 시 : 5.26(목) 19시30분
- 장 소 : 동리국악당
- 관람료 : 무 료
- 주 최 : 고창군
- 주 관 : 사)동리문화사업회
- 문 의 : 063-560-8041~2, 560-8065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2016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2016. 6. 17(금) ~ 6. 19(일)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숲 일원
<http://bokbunja.gochang.go.kr> 문의:063)561-1987